

어선 '제102해진호' 침몰사고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 04시 15분경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약 2.3해리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'제102해진호(139톤)' 침몰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, 해경 등과 협조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해 달라” 라고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11명 중 10명을 구조하고, 해경 함정 및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3.14.(목) 04시 15분경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약 2.3해리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'제102해진호' 가 침몰

* 총톤수 139톤, 부산 서구 선적, 11명 승선

△ (05시 1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주의” 발령

△ (06시 20분 현재 피해현황) 11명 중 10명 구조, 1명 실종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윤상훈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손외학 (044-200-5526)